

朝鮮後期 陣法 鴛鴦陣의 軍士武藝 特性

최형국*

1. 머리말
2. 鴛鴦陣 導入 背景과 定着
3. 鴛鴦陣에 사용된 軍士武藝의 種類와 실제
4. 鴛鴦陣의 陣法 構成과 軍士武藝의 特性
5. 맺음말

1. 머리말

일반적으로 전쟁의 승패요인은 병력 동원 능력, 동원된 병사 개개인의 전투능력, 전투에서 부대의 기동 방법 등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이 중 병력 동원 능력과 전투 기술과 관련된 문제는 전투가 있기 전에 이미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많은 변수가 따르는 실제 전투 현장에서는 부대의 기동 방법이 승패를 가르는 핵심적인 요인이 된다. 이러한 군부대의 기동 방법을 담고 있는 전통시대의 陣法에는 전투 현장에서의 부대 움직임을 비롯한 진을 치는 방법이 잘 드러나 있다.

* 중앙대 역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근대식 火藥武器가 치명적인 무기로 인식되기 전까지 전장에서의 승패는 일정한 陣을 치고 있다가 직접 얼굴을 맞대고 싸워서 판가름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심지어 個人火器인 鳥銃과 대구경 佛狼機를 비롯한 다양한 火砲들이 전장에서 널리 퍼진 朝鮮後期 상황에서도 진법을 위주로 하는 전쟁은 계속되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수많은 전쟁을 통해 진법 대결이 벌어졌고 이러한 축적된 경험들에 의해 진법은 계속 발전하게 되었다. 만약 진법 대결의 결과 한 쪽의 진이 일방적으로 무너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후의 전투에서는 필연적으로 이를 방어하기 위한 새로운 진법이 고안되기 마련이었다. 대표적으로 壬辰倭亂을 거치면서 朝鮮에 도입된 明 浙江兵¹⁾의 陣法인 鴛鴦陣은 이러한 전투현장의 고민을 담고 있다. 壬亂 당시 短兵接戰術을 이용한 日本軍의 陣法에 開戰初期 明과 朝鮮이 구사한 騎兵위주의 陣法 및 戰術體系는 그 한계를 명확히 드러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새로운 대응책으로 도입된 것이 바로 明의 『紀效新書』를 통해 朝鮮에 보급된 鴛鴦陣法이었다.²⁾

鴛鴦陣은 步兵을 중심으로 한 진법이었다. 이 陣法은 당시 큰 변화를 보이고 있었던 戰場의 상황에 따라 壬亂 이후에는 弓矢 및 鳥銃 등의 무기가 추가되면서 지속적으로 변화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陣法의 도입과 정착을 살펴보는 것은 당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을

-
- 1) 浙江兵은 中國의 동쪽 해안가인 浙江地方의 병사를 말한다. 浙江地方은 해안가로 비가 많이 와서 논농사를 위주로 한 水田農法이 발달하여 騎兵을 운용하는데는 많은 한계가 있었다. 보통 보병 위주로 구성된 浙江兵을 南兵이라 하고, 東北三省 지역의 兵士들은 기병위주의 北兵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 2) 壬辰倭亂 당시 日本軍의 短兵接戰術에 대항하기 위하여 명나라에서 입수한 『紀效新書』의 여섯 가지 기예를 수록한 『武藝諸譜』와 관련한 연구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였다. 朴起東, 『朝鮮後期 武藝史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 盧永九, 「宣祖代 紀效新書의 보급과 陣法 논의」 『軍史』 34호, 군사편찬연구소, 1998 ; _____, 「壬辰倭亂 이후 戰法의 추이와 武藝書의 간행」 『한국문화』 27집, 2001 ; 沈勝求, 「壬辰倭亂 中 武藝書의 편찬과 의미」 『한국체육대학교 논문집』 26집, 한국체육대학교, 2003 ; _____, 「한국 무예사에서 본 『武藝諸譜』」 『한국무예의 역사·문화적 조명』, 국립민속박물관, 2004 ; 정해은, 「임진왜란기 조선이 접한 단병기와 『무예제보』의 편찬」 『軍史』 51호, 2004 ; 최형국, 「조선후기 倭劍 交戰 변화연구」 『역사민속학』 25호, 역사민속학회, 2007 참조.

것이다. 특히 鴛鴦陣은 당대 步兵의 武藝가 집약된 것으로 조선후기 군사 무예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진법이기에 더욱 연구할 만한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壬亂과정 중 朝鮮에 도입된 明 浙江兵의 陣法인 鴛鴦陣의 도입배경과 정착과정을 살펴보고 기존의 연구에서 행해지지 않았던 진법 속에 구현된 무예의 실기적 고찰을 병행하고자 한다. 현재까지의 陣法을 비롯한 각종 兵書에 관한 연구가 단순한 문헌적인 고찰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陣法 속에서 군사들이 실제로 익혔던 軍士武藝의 특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던 한계가 있었다.³⁾ 본고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鴛鴦陣에 사용된 軍士武藝의 실기적 고찰을 『武藝圖譜通志』⁴⁾에 수록된 군사무예의 복원을 통하여 살펴보고, 실제 陣法 속에서 군사들의 움직임을 밝혀내고자 한다.

2. 鴛鴦陣 導入 背景과 定着

壬亂 開戰初期 朝鮮軍에 보급된 鴛鴦陣은 연속되는 전술패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었다. 鴛鴦陣은 明軍이 개발한 步兵중심 진법이었다. 이러

3) 가장 최근 조선시대 군사 陣法에 관한 논문으로는 김동경, 『조선초기 진법의 발전과 군사 기능』 국방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와 곽낙현, 「조선전기 習陣과 군사훈련」 『동양고전연구』 35호, 동양고전학회, 2009가 있으며 水軍 方面으로는 김병륜, 「조선시대 수군 진형과 함재 무기 운용」 『軍士』 74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0가 대표적이다.

4) 『武藝圖譜通志』는 朝鮮 正祖代 1790년에 편찬된 군사 개개인을 위한 무예서로 여기에는 地上武藝 18가지와 말을 달리며 익히는 馬上武藝 6가지로 도합 24가지의 무예가 그림과 글로 설명되어 있다. 『武藝圖譜通志』의 편찬과정을 살펴보면 임란과정 중 鴛鴦陣에 사용되는 棍, 藤牌, 狼筈, 長槍, 銳鈚, 長刀 등을 수록한 『武藝諸譜』가 1598년에 편찬되었다. 그리고 1754년에는 나머지 本國劍과 月刀 및 拳法 등 12가지 무예가 더해져 『武藝新譜』로 편찬되기에 이른다. 이후 1790년에 地上武藝에 馬上武藝를 추가하여 『武藝圖譜通志』가 완성된 것이다. 특히 『武藝圖譜通志』에는 『武藝諸譜』에는 없는 總圖의 형태가 있어 각 무예의 연속된 움직임을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고 내용은 舊譜와 일치하기에 이 武藝書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 鴛鴦陣이 임란 당시 조선군의 전술적 대안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개전 초기 핵심이 되는 전투들에서 잘 드러난다. 구체적으로 부산을 점령한 후 북진하는 일본군과 都城을 방어하기 위해 충청지역에 선발 파견된 조선군의 주력부대가 맞붙은 충주 탄금대 전투에서 朝·日 양측에서 구사하던 戰術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충주방어의 경우 鳥嶺이라는 천연의 방어선이 있었지만 三道都巡邊使 申砮은 騎兵戰術을 활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鳥嶺을 포기하고 충주성으로 회군하였다.⁵⁾ 탄금대에 背水陣을 친 朝鮮軍과 약 2만 명으로 구성된 日本軍과의 전투는 朝鮮軍 騎兵⁶⁾의 偃月陣 돌파전술이 日本軍 鳥銃手에게 밀려 완전히 패배하면서 마무리 되었다. 당시 彈琴臺 전투 상황을 가장 잘 기록하고 있는 일본측 사료 중 포르투갈 선교사 Luis Prois가 남긴 편지에 전투장면을 묘사한 기록을 보면 朝鮮軍 騎兵의 일방적인 돌격에 일본군 조총부대가 집중사격으로 대응한 것이 확인된다.⁷⁾ 그리고 鳥銃의 사격으로 인해 陣形이 흩어지면 이어 바로 槍劍으로 무장한 日本軍의 殺手隊에 朝鮮軍 步兵이 도륙되는 상황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개전초기 주요전투중 하나인 龍仁戰鬪는 탄금대 패배이후 8일이 지난 1592년 5월 4일에 처음 발생한 전투였다. 전투 당시 처음에는 勤王兵의 형태로 조급하게 구성된 朝鮮軍의 先鋒將 白光彦과 助戰將 李之詩는 선봉대 200여명을 이끌고 야음을 틈타 日本軍을 기습하려 하였으나 미리 발각되어 鳥銃에 집중 사격을 당하고 실패하게 된다.⁸⁾ 이에 조선군은 그 다

5) 『宣祖實錄』 卷20, 宣祖 6年 6月 辛亥.

6) 騎兵은 騎馬兵의 略字로 史料에서는 騎兵과 馬兵을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騎兵이라는 명칭을 騎兵과 馬兵을 통칭하는 用語로 사용하였다. 단지 원문 인용시에는 해당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7) 장원철 외, 『임진왜란과 도요토미 히데요시』 국립진주박물관, 2003, p.212, 재인용. 이 자료는 포르투갈 출신의 예수회 선교사였던 Luis Prois가 30년 남짓의 오랜 기간 일본에 체재하면서 자신이 직접 체험하거나 전해 들었던 갖가지 사실을 모아 『Historia de Japam』이라는 이름으로 출간된 책의 내용이다. 프로이스는 壬辰倭亂 中 日本軍 선봉장이었던 고니시 유키나가군에 소속된 선교사로 당시 직접 전쟁을 체험한 수기를 작성하였다. 특히 이 자료는 전쟁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쓴 글이고, 당시 이 편지가 본국에 있는 예수회 본회에 현장의 소식을 전하는 성격이었기에 객관적 글이라 판단된다.

8) 寄齋史草 下, 壬辰日錄 三 ; 簡易集 1卷, 碑 權元帥 幸州碑.

음날 수천의 騎兵을 대동하여 對陣을 하고 전투를 수행하려 하였다. 그러나 일본군의 지속적인 조총공격과 이어지는 短兵接戰에서 밀려 약 8만의 군사들이 제대로 전투조차 치르지 못하고 흩어져 버렸다.

이처럼 개전초기 朝鮮軍의 패배 양상은 日本軍의 전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또한 彈琴臺戰鬪와 龍仁戰鬪처럼 전투 지휘관의 잘못된 판단과 더불어 제대로 훈련되지 못한 군사들의 전술활용은 오히려 적에게 이득이 되는 상황을 만들었다. 당시 조선군의 기병위주의 전술 전개방식은 조선 초기 주적을 女眞族으로 삼아 만들어진 戰法으로 일본군의 銃兵과 槍劍兵의 복합전술을 상대하기에는 무리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병위주의 전술 패배 양상은 이후 明의 원군으로 朝鮮에 최초로 진군한 遼東 副總兵 祖承訓의 騎兵 부대까지 短兵接戰術에 휘말려 제대로 된 전투조차 치르지 못하고 본국으로 패퇴하고 말았다. 당시 1차원군인 조승훈 부대의 편성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광녕유격 왕수관과 원임 참장 광몽징 등은 병사 5백 6명, 말 7백 79필을 거느리고 이달 17일에 강을 건너왔고, 부총병 조승훈은 군사 1천 3백 19명, 말 1천 5백 29필을 거느리고 어제 계속하여 도착하였다.⁹⁾

위의 사료를 보면 전투에 사용될 말이 약 2,200기이고 軍兵은 1,800명으로 중국의 北方을 방어하던 기병 위주의 부대편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대로 제 1차 평양성 탈환전투에서 副總兵 祖承訓이 이끄는 기병위주의 전술 전개방식은 日本軍의 守城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이후 전투가 끝나고 단 하루 만에 본국으로 돌아 가버렸다.¹⁰⁾

이러한 開戰初期 朝鮮軍과 明軍의 전술패배는 곧 日本軍 戰術의 승리로 볼 수 있다. 당시 日本軍 전술의 기본은 아직 朝鮮軍이나 明軍에 일반적으

9) 『宣祖實錄』卷27, 宣祖 25年 6月 戊申, “調度使洪世恭馳啓曰 廣寧遊擊王守官原任參將郭夢徵等 領兵五百六名 馬七百七十九匹 本月十七日越江 副總兵祖承訓 領軍一千三百十九名 馬一千五百二十九匹 昨日繼到.”

10) 『宣祖實錄』卷28, 宣祖 25年 7月 丁丑.

로 보급되지 않았던 조총부대를 선두에 세우고 선제사격을 가한 뒤, 이후 短兵接戰을 펼칠 수 있는 槍手와 劍手 등을 비롯한 殺手들이 달려 들어가 적진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이러한 일본군 전술의 핵심을 三疊陣이라고 했는데, 壬亂 중에 항복해서 朝鮮軍으로 편입된 倭兵인 降倭兵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왜군은 군대를 나눌 때마다 반드시 다섯으로 만든다. 一陣이 적을 맞이하면 뒤에 二陣은 좌우의 날개를 벌려서 그들을 포위하며, 좌우 두 머리가 적을 대치하면 또 뒤의 두 진이 그 바깥으로 둘러 나와서 언제나 우리 군사로 하여금 그들의 포위망으로 몰아넣는다... (중략) (왜군은) 군사들을 셋으로 나누어 편성해서 三疊陣을 만들고 행렬을 이뤘는데 앞에 선 행렬은 旗幟를 가졌고, 가운데는 조총을 갖게 하고, 뒤의 행렬은 短兵을 가지게 한다. 적을 만나면 앞 행렬의 기치를 잡은 자들은 양쪽으로 나누어 벌려 포위한 형태를 만들고, 중앙 행렬의 조총을 가지 자들이 일시에 총을 발사하여 적진을 충돌하니 적군이 많이 조총에 상하여 적진이 요동한다... (중략) 뒷 열의 槍劍을 가진 자들이 뒤에서 추격하여 마음대로 그들(적 도망병)을 목 베어 죽인다.¹¹⁾

이렇게 日本軍의 조총사격 후 短兵接戰을 펼치는 鳥銃兵과 槍劍兵을 비롯한 步兵 위주 전술은 朝鮮軍에게 결정적이 타격이 되었으며, 이후 明軍의 1차 원군인 騎兵 위주 전술전개 방식을 구사한 조승훈 부대의 패퇴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¹²⁾

이러한 초기 패전의 원인을 전술의 실패로 파악한 明軍은 이후 提督 李如松을 위시로 하여 2차 援軍을 파견하는데, 여전히 騎兵의 비율이 步兵대 비 약 3배가 많은 기동력을 중시하는 형태로 부대를 편성하였다. 당시 출병한 明軍을 지휘 장수 및 騎·步兵으로 구분하면 <표 1>과 같다. 대신 제

11) 『西厓集』 卷16, 雜著, 倭知用兵, “屢見倭陣凡分軍必爲五 一陣當敵 後二陣張左右翼圍繞之 左右兩頭遇敵 則又後二陣繞出其外 常使我軍在其圍中... (中略) 分而爲三 爲三疊陣 成行列立 前一行持旗幟 中行持鳥銃 後行持短兵 遇敵則前行持旗幟者 兩邊分開 而爲圍抱之狀 中行持鳥銃者 一時俱發衝賊陣 敵多爲鳥銃所傷陣動 而又見左右 已有圍兵 必遁走 於是後行持槍劍者 從後追擊 肆其斬刈云.”

12) 李弘斗, 「임진왜란 초기 조선군의 기병전술」 『白山學報』 74호, 2000, p.280.

3차 평양성탈환 전투를 비롯한 핵심 전투시 실제 전술운영에 있어서는 虎準砲와 佛狼機 등을 이용하여 막강한 火力을 바탕으로 한 步兵의 短兵接戰을 중심으로 전개하였다.

당시 3차 평양성탈환 전투 상황을 보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朝鮮軍은 평양성의 남쪽 성벽으로 압박하여 들어갔고, 明軍 중 駱尙志가 이끄는 浙江步兵은 서쪽 성벽 주위로 병력을 집결시켰다. 이후 다양한 火砲를 이용하여 성안 전체에 포격을 가한 후 보병들이 성벽을 기어오르는 攻城戰을 감행하였다.¹³⁾ 左參將으로 浙江步兵을 이끈 駱尙志는 평양성의 毬門쪽의 성을 따라 長槍과 麻牌를 짊어지고 전투에 직접 참가하였다.

<표 1> 제2차 明 援軍 騎步 구성¹⁴⁾

연번	지휘장수	軍士		연번	지휘장수	軍士	
		騎兵	步兵			騎兵	步兵
1	李如松	1,000	-	21	王必迪	-	1,500
2	楊元	-	2,000	22	高策	1,000	-
3	李如栢	-	1,500	23	葉邦榮	1,500	-
4	張世爵	-	1,500	24	錢世禎	1,000	-
5	任自強	1,000	-	25	戚金	-	1,000
6	李平胡	800	-	26	谷燧	1,000	-
7	查大受	騎步 총수만 있음(3,000)		27	周弘謨	1,000	-
8	王有翼	1,200	-	28	方時輝	1,000	-
9	孫守廉	1,000	-	29	高昇	1,000	-
10	王維貞	1,000	-	30	王問	1,000	-
11	趙之牧	1,000	-	31	梁心	1,000	-
12	李方春	1,000	-	32	趙文明	1,000	-
13	李如梅	1,000	-	33	高徹	1,000	-
14	李如梧	500	-	34	施朝卿	1,000	-
15	張應种	1,500	-	35	葛逢夏	2,000	-
16	駱尙志	-	3,000				
17	張奇功	1,000	-				
18	陳邦哲	1,000	-				
19	吳惟忠	-	3,000	騎步	總騎/總步	32,500	13,500
20	宋大贊	2,000	-	총수		總 騎步 : 46,000	

13) 『國朝寶鑑』 31卷, 宣祖朝 8, 26年.

14) 『宣祖實錄』 卷34, 宣祖 26年 1月 丙寅, 天兵各營領兵數目.

당시 浙江步兵의 전투 모습을 조선후기 兵書인 『兵學指南演義』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明軍이 평양성으로 진입한 다음 먼저 火砲를 발사하고 뒤이어 火箭을 발사하여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으니, 왜적들은 마침내 기가 꺾이고 말았다. 明軍은 곧 장창과 짧은 당파를 사용하는 병사들을 동원하여 각기 운용방식에 따라 사용하였는데, 만약 적이 먼저 돌진해 오면 낭선부대를 집중시켜 대기하고, 만약 적이 움직이지 않으면 방패수들이 방패를 들고 진진한 결과, 왜적은 크게 궤주하고 말았다.¹⁵⁾

이러한 明軍의 강력한 火砲와 短兵接戰에 능한 浙江兵들의 활약으로 평양성을 수복하게 된다.¹⁶⁾ 그러나 이후 戰果를 살피는 과정에서 明軍 중 적과 교전하는 즈음에 칼날에 맞아 죽은 자가 1천 명이나 된다고 할 정도로 日本軍의 短兵接戰術은 明軍에게도 많은 타격을 입혔다.¹⁷⁾ 또한 明의 騎兵도 日本軍의 短兵接戰術에 많은 시련을 당했다.

1593년 1월에 발생한 벽제관 전투를 평하던 西厓 柳成龍은 “이때 제독이 고개에서 거느린 군사는 모두 북방의 騎兵으로서 火器도 없고 다만 짧고 무딘 칼만 가졌을 뿐이다. 적병은 步兵으로서 칼이 모두 서 너 자가 되는 예리하기 비길 데 없는 것이었다. 이들과 충돌해 싸우는데 적병은 긴 칼을 좌우로 휘둘러 치니 사람과 말이 모두 쓰러져서 감히 그들의 날카로운 기세를 대적할 수 없었다.”¹⁸⁾고 언급했을 정도로 明의 騎兵도 日本軍의 短兵接戰法에 많은 수가 희생되었다. 당시 다른 戰場에서도 日本軍의 단병접전술은 위력이 상당하였는데, 심지어 日本軍들이 칼날을 번뜩이고 달려오면 朝鮮軍들은 그 위세 눌러 칼집에서 칼을 뽑지도 못하고 전멸하는 최악의

15) 『兵學指南演義』序文, “箕城先放火砲繼以火箭烟燄蔽空 賊遂奪氣輒出 長槍短鈚之屬各以其法用之賊 若先突則叢筮以待賊 若乍住則擁牌以進賊遂大潰.”

16) 『宣祖實錄』卷34, 宣祖 26年 1月 11日 丙寅.

17) 『宣祖實錄』卷34, 宣祖 26年 1月 10日 乙丑.

18) 『懲愆錄』卷2, “時提督所領 皆北騎 無火器 只持短劍鈍劣 賊用步兵刀皆三四尺 精利無比 與之突鬪 左右揮擊 人馬皆靡 無敢當其銳者.”

사태까지 발생하였다.¹⁹⁾

이후 평양성 탈환 전투에서 크게 활약한 明 浙江兵의 무예를 익히기 위하여 宣祖 31년 訓練都監 郎廳 韓嶠를 중심으로 明나라의 兵法書인 『紀效新書』에 수록된 기예 중 여섯 가지를 뽑아내어 『武藝諸譜』를 편찬하게 된다. 『紀效新書』는 明의 장수인 戚繼光이 만든 兵書로, 임란이전 明의 본토에서 短兵接戰에 능한 왜구들에게 절대적인 우세를 보였던 浙江兵法의 요체가 담긴 군사서적이었다.²⁰⁾ 『武藝諸譜』에 실린 여섯 가지 무예는 棍²¹⁾, 籐牌, 狼筈, 長槍, 銃鉞, 長刀 등의 여섯 가지로 임란 중 일본군의 短兵接戰을 방어 및 공격하는데 효과적인 기예들로 집중되었다. 이 여섯 가지 무예가 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兵學指南演義』에 비교적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長槍과 銃鉞 두 종류는 적을 죽이는 기구이고, 防牌와 狼筈 두 종류는 적을 방어하는 기구이며, 또 창과 낭선은 短兵 중에 長兵이고, 防牌와 銃鉞는 短兵

19) 『武藝諸譜』 「籌海重編交戰法」, “故與倭對陣 倭輒敢死突進 我軍雖有持槍而帶劍者 劍不暇出鞘 槍不得交鋒 束手而盡衄於兇刃皆由於習法之不傳.”

20) 절강병법은 명나라 장수 戚繼光에 의해 만들어진 새로운 병법으로 당시 중국의 동쪽 해안 남방지방을 자주 괴롭혔던 왜구들을 소탕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특히 이곳은 水田農法이 발달한 지역이라서 저습지가 많고 산림이 많아 말을 달리기가 불편하여 기병전술이 통하지 않았던 지역이었다. 특히 당시 명나라의 경우도 지방군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군대를 지속적으로 조련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그래서 척계광은 지역민을 군사로 조련하면서 절강지역에 많이 자라고 있던 대나무를 사용하여 낭선과 장창을 만들고 산림 속 등나무 넝쿨을 이용하여 등패를 만들었다. 그리고 농기구의 일종에서 형태를 변형시킨 당과를 전투에 응용하게 된 것이다. 물론 이러한 무기는 당시 군자금의 부족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었지만, 보병 중심의 새로운 전법을 만든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특히 척계광의 새로운 전법은 왜구들을 효과적으로 막아 낼 수 있어 降倭戰法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다. Ray Huang, 『1587, A year of No Significance』, Yale University Press, 1981. pp.166~178.

21) 棍은 『武藝諸譜』에 棍譜라는 이름으로 실려 있고, 『武藝圖譜通志』에는 棍棒이라는 이름으로 실려 있다. 그런데 보통은 棍棒을 읽을 때 그냥 한자 그대로 '곤봉'으로 읽는 경우가 많고, 한글 표기 시에도 '곤봉'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武藝圖譜通志』의 棍棒 설명에는 분명히 '棒 音傍'이라 하여 '곤방'으로 읽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武藝圖譜通志』 諺解本에도 역시 '棍棒譜 곤방보'라고 표기하여 '곤방'이라고 읽는 것이 옳을 것이다. 현재 『武藝諸譜』를 비롯하여 朝鮮後期 兵書에 대한 연구가 계속 되고 있지만 여전히 한글 표기에서 '곤봉'이라는 표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

중에 短兵이다. 이 陣營은 하나는 긴 병기를 사용하고 하나는 짧은 병기를 사용하며, 하나는 적을 죽이는 병기를 사용하고 하나는 적을 방어하는 병기를 사용하며, 여러 가지 병기를 혼합 운용함으로써 승리를 거둔다.²²⁾

이처럼 短兵接戰 시에 긴무기와 짧은 무기를 적절히 배치하여 “모든 병기의 이로운은 곧, 긴 것이 짧은 것을 위하고, 짧은 것이 긴 것을 구한다면 함락되지 않는다”²³⁾라는 兵種의 다양화를 통해 日本軍의 단병접전술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 이처럼 12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부대형태로 긴 무기와 짧은 무기를 조화롭게 배치한 것이 鴛鴦陣法인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壬辰倭亂 당시 평양성 탈환전투에서도 鴛鴦陣法은 鳥銃과 槍劍으로 무장된 日本軍을 제압하고 조명연합군의 승리를 이끌어준 새로운 陣法이었다.

이후 새롭게 도입된 朝鮮軍에 보급된 鴛鴦陣은 조선후기 군사 行軍을 비롯하여 國王 御駕행렬의 시위시에도 사용될 만큼 보편적으로 운용되었다. 대표적으로 丙子胡亂 중 平安道の 근왕병이 격전을 치렀던 金化전투에서 공격의 한축을 담당했던 平安監司 洪命壽의 부대 약 1,000여명이 金化縣까지 행군 중에 鴛鴦陣의 형태로 움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²⁴⁾ 당시 洪監司의 부대는 丙子胡亂이 발발하자 平壤城의 위성인 慈母山城으로 도합 2,000여명이 들어가 거점 방어전술을 취하였는데, 淸軍이 평양성의 공격대신 都城으로 빠르게 南下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동원 군사의 절반인 1,000명을 빠르게 鴛鴦陣의 형태로 이동시킨 것이다. 그리고 당시 斥和를 주장했던 司諫 趙綱의 글 중에는 鴛鴦隊의 형태로 포를 운용하는 진법운용 장면을 설명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22) 『兵學指南演義』營陣正彙 2卷, 器械, “共管者夾衛之意分救者獨應之意(槍鉞二種殺器也 牌笏二種禦器也 又槍與笏短中長也 牌與鉞短中短也 比陣一長一短 一殺一禦 雜然成利觀者詳之.”

23) 『武藝圖譜通志』卷首, “技藝質疑 故五兵之利長以衛短短以救長不可陷之盾與無不陷之矛均不可缺推此而制陣之火器藉兵器而無恐兵器藉火器而取勝形格勢禁使之無所顧有所恃如淮陰背水陳法此一二名將所陰用而不言於人而人當自悟也.”

24) 『定齋集』卷之四 記 十一 記金化栢田之戰, “時洪監司柳兵使 舉兵於平安道 同行赴難 由兎山而東 以丁丑正月十六日至縣 洪監司軍可千餘以鴛鴦陣行 柳兵使軍較多行爲圓陣止爲方營 兩軍至縣 遇賊不得進 縣有積穀可館 縣南有高岡.”

장수가 단에 올라 명령하길, 군법에서 가장 꺼리는 것이 소란스럽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잡소리를 내는 자는 목을 벨 것이다. 또한 삼가 말하길, 병사들이 바로 활이나 포를 쏠 수 있도록, 射手는 활이 가득 당겨질 때까지(만작을 이름) 시위를 잡아야 하고, 砲手는 심지에 불을 붙일 수 있도록 불을 끼고 다녀야 한다.… (중략) 一字陣의 기세는 조수가 달려 나가는 것과 같고, 군사들에게 명령이 떨어져 두 날개가 되면, 鴛鴦隊를 지어 포를 쏜다. 설 틈 없이 많은 방포를 하면, 대포군의 땅이 움직이는 소리로서 적이 크게 무너질 것이다.²⁵⁾

이처럼 鴛鴦陣의 형태는 이후 화포대를 운용하는 진법으로 활용될 만큼 朝鮮軍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특히 英祖代에는 국왕의 어가행렬에서도 鴛鴦陣을 활용하기도 하였는데, 이때에는 御駕가 지나는 길이 협소하여 주변의 곡식을 상하게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²⁶⁾ 그리고 禁軍의 軍禮시에도 鴛鴦陣의 형태를 활용하여 각 군사들의 兵器와 軍裝상태를 점검하기도 하였다.²⁷⁾ 또한 鴛鴦陣은 國王의 禁軍뿐만 아니라, 지방의 軍營에서도 운용되었다. 당시 지방의 대표적 군영인 平壤監營에서도 鴛鴦陣의 형태가 지속적으로 훈련되어 갔다.²⁸⁾

軍營에서의 鴛鴦陣 훈련은 正祖代에도 꾸준히 진행되었다. 中央軍營인 訓練都監을 비롯하여 지방군영인 華城에서도 鴛鴦陣의 실제적인 훈련이 지속되었다.²⁹⁾ 또한, 正祖代에 편찬된 『兵學通』에 실려 있는 禁軍 성격이 강한 禁衛營의 훈련방법을 보면 다른 軍營과는 다르게 兩儀陣에서 三才陣으로,

25) 『龍洲先生遺稿』 卷之十六 墓碣 延陽府院君李公墓表, “登將壇令曰 軍法最忌囂 如有囂者斬又戒曰 射者持滿 砲者挾火 待令乃發 俄而賊大呼 一時薄城 公先發矢 砲弩齊發 賊大崩 方戰 公徒楊立矢石所 軍吏持甲胄進 却之曰 君父在圍城中 我有欲生心 聞者無不歎息泣下 頃之翟裨復起 人銜枚擁盾 一字爲陣勢若奔潮 公令軍爲兩翼炮作鴛鴦隊 百放不暇止間 以大炮軍聲動地 賊又大崩.”

26) 『英祖實錄』 卷30, 英祖 7年 9月 丙午.

27) 『英祖實錄』 卷119, 英祖 48年 10月 乙亥, “上御崇政殿 行香祇迎禮 命龍虎將元重會 具甲胄率入番禁軍 以鴛鴦隊序立 行軍禮 因點檢各色戎器軍裝.”

28) 『石北先生文集』 卷之十 靈川申光洙聖淵甫著 詩 關西樂府, “其九十五 營下長身白面郎 鮮明賽過禁軍裝 猩裙來袖鴛鴦隊 又導門旗入教場.”

29) 『燕巖集』 3卷, 孔雀館文稿.

그리고 駕鴛陣으로 합하는 형태로 집중적인 전투 훈련을 수행하고 있다.³⁰⁾

이처럼 正祖代에 中央軍營 중 禁衛營에서는 駕鴛陣 훈련이 일반적이었다. 그리고 英正祖代 대표적인 禁軍인 龍虎營의 觀武才와 賞試射에서도 用劍手와 槍手 및 拳法手들이 駕鴛陣에 활용된 軍士武藝를 시험 본 것을 확인할 수 있다.³¹⁾ 뿐만 아니라 訓練都監에서는 매월 치러지는 中旬에서 劍手들이 籐牌·狼筴·長槍 등을 시험 본 것을 확인할 수 있어 駕鴛陣이 中央軍營에서 지속적으로 훈련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³²⁾

다음의 <표 2>는 『萬機要覽』에 나타난 駕鴛陣에 사용된 軍士武藝 試藝 내용이다.

<표 2> 『萬機要覽』에 나타난 駕鴛陣의 軍士武藝 試藝 내용

구분	龍 虎 營	訓 練 都 監
觀武才	用劍手는 用劍·雙劍·提督劍·偃月刀·倭劍·交戰·本國劍·銳刀를 통합하여 一技로 삼는다. 槍手는 木長槍·長槍·기旗槍·鎗鉞·狼筴·籐牌를 종합하여 일기로 삼는다. 拳法手는 拳法·鞭棍·挾刀·棍棒·竹長槍을 종합하여 一技로 삼는다.	-
賞試射	用劍手는 用劍·雙劍·提督劍·偃月刀·倭劍·交戰·本國劍·銳刀를 합하여 一技로 한다. 槍手는 木長槍·旗槍·鎗鉞·狼筴·籐牌를 합하여 일기로 한다. 拳法手는 拳法·步鞭棍·挾刀·棍棒·竹長槍을 합하여 一技로 한다.	-
中旬	-	步軍의 원 과목은 鳥銃 6발 柳葉箭 1순 과녁을 명중하면 점수를 배로 계산한다. 劍은 1次인데 籐牌·狼筴·長槍을 통틀어서 劍이라 한다. 拳法 1次인데 棍棒·步鞭을 통틀어 拳法이라 한다.

30) 『兵學通』場操 分練 禁御營純銃手兼習殺手分練之法, “分爲兩儀陣 放砲一聲吹單啣囉各起立放砲一聲立藍白大旗吹擺隊伍喇叭分爲兩儀陣鳴金仆旗喇叭止放砲一聲點鼓前行擂鼓吹天鵝聲吶喊飛跑鳴金鼓止共三次擗鉞鳴即收隊伍放砲一聲鳴金三聲即器械向前身首向後鳴金退回連鳴金二聲作虎聲回身立定三退至原調來所立信地鳴羅坐息 變爲三才陣 放砲一聲吹單啣囉各起立放砲一聲立藍紅白大旗吹擺隊伍喇叭變爲三才陣鳴金仆旗喇叭止操令如前操畢鳴羅坐息合爲駕鴛陣 放砲一聲吹單啣囉各起立放砲一聲立黃大旗擗鉞鳴合爲駕鴛陣鳴金仆旗鉞止放砲火一枝鉞弓手出前吹天鵝聲放射擗鉞鳴俱回原隊放砲一聲點鼓前行操法如前操畢放砲一聲吹轉身喇叭即將兩伍俱向內轉身立定打得勝鼓回在本旗摠後空地立定鳴羅坐息(二隊三隊亦照前習戰一旗完又聽二旗三旗各輪照一旗之法操畢俱回札駐信地坐息.”

31) 『萬機要覽』軍政篇 2 龍虎營 試藝.

32) 『萬機要覽』軍政篇 2 訓練都監 試藝.

또한 丁若鏞은 『牧民心書』에서 鴛鴦陣에서 三才陣으로 변화하는 신호방법을 설명하였다.³³⁾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대에 올라 신호포를 쏘는 날, 단발라를 붙고, 黃旗를 한 면에 세워, 이곳의 신호를 알게 한다. 本營의 鴛鴦陣 명령신호도 위와 같은 법으로 응한다. 만약 신호포가 울리고, 단발라를 붙고 삼면에 남홍백대기가 서면 즉시 신호를 알아차려, 본영에서는 三才陣 명령신호를 한다. 응하는 법도 이와 같다.³⁴⁾

이러한 신호체계에 따라 움직이는 鴛鴦陣은 正祖代 華城을 방어하는 군사훈련에서도 지속적으로 시행되었는데, 다음의 기록이 당시 鴛鴦陣의 전술적 운용방식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적이 백보 안에 들어오면, 즉 보군의 戰統과 駐統이 합하여 외진을 갖추어 쫓아 움직인다. 佛狼機의 위력 등을 갖춘 원거리 포수(조총수)와 노와 경노 등을 보주통의 앞에 나아가 설치한다. 먼저 총과 활을 쏜다. 이윽고 短兵接戰이 일어날 때, 주통은 기계(원사무기)를 거두고 행렬을 당겨 움직이지 않는다. (短兵接戰이 일어날 때) 전통의 총수들은 총을 버리고, 도와 낭선을 이용하여 방패수를 구하고, 창으로 낭선수를 구하고, 당파로써 창을 방어한다. 騎兵의 기본무장으로 弓·刀·槍·棍을 준다. 그리고 총과 화살을 겸하게 함으로써 그 길고 짧음이 서로 순환하게 하여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방비하는 제도가 척계광의 법이다. 북쪽과 남쪽에 대한 방비는 함께 가지 않으면 어그러지므로 각각 구해하는 것이 마땅하다.³⁵⁾

33) 鴛鴦陣은 그 진형의 움직임에 따라 兩儀陣(혹은 梅花陣), 三才陣으로 변형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은 후술하겠다.

34) 『牧民心書』卷八 兵典六條 練卒兵典第二條, “是日將臺學號砲 吹單哮囉 立黃旗一面 卽知此號 本係鴛鴦陣號令 應之如法 若學號砲 吹單哮囉 立藍紅白大旗三面 卽知此號 本係三才陣號令 應之如法.”

35) 『研經齋全集外集』卷 四十二 傳記類 華城軍制 陣法, “賊在百步之內 則步軍戰駐統合就外壘具舉 佛狼威遠等砲手弩勁弩等 具藏鋪於駐隊之前 先銃弓而放之射之 及短兵相接之時 駐隊收拾器械 按列不動 戰統銃手棄銃而用刀笄以救牌槍以救笄鈹以防槍 騎兵則原授弓刀槍棍而兼授銃矢以之長短相傷循環 不窮者 衛制威法 并行不悖備北備南各得其宜矣.”

위의 사료를 보면 朝鮮前期 五衛陣法 체제에서 등장하는 戰統과 駐統이 적과의 거리가 100步로 좁혀지면서 펼쳐지는 陣法의 변화를 설명한 것이다. 그런데 朝鮮前期 五衛陣法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狼筈과 당과 등 鴛鴦陣에서만 독특하게 등장하는 무기를 사용함으로써 오위진법을 원양진에 대입하려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鴛鴦陣의 단병접전술 이전에 불랑기를 비롯한 다양한 遠射武器를 사용한 것은 전형적인 절강병법으로 보인다. 이는 肅宗代 三軍門 도성방어체계 시도 이후 끊임없이 제기되어오던 五衛體制 復舊論을 실질적으로 正祖代 군영운영에 반영한 흔적일 것이다.

正祖代 이후로는 朝鮮後期 軍營臚錄 중 하나인 『御營廳中甸臚錄』의 기록을 보면 憲宗 5年(1839년 己亥)까지 鴛鴦陣 구성에 필수적인 鏡鉞, 狼筈, 籐牌 등 다양한 軍士武藝를 시험 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표 3>은 『御營廳中甸臚錄』에 기록된 中甸試³⁶⁾ 중 軍士武藝가 등장하는 최종 날짜의 시험과목과 시상내역을 정리한 것이다.

<표 3> 『御營廳中甸臚錄』 중 己亥十月初八日 軍兵의 中甸試 科目과 施賞 別單 내역³⁷⁾

연번	과 목	總 施賞 내역
1	射	木二疋(柳貫一中二各木一疋) ***'木'은 '木桶'을 말함.

36) 中甸試는 조선후기 군사들에게 弓, 砲, 短兵武藝를 권장, 습득시키기 위해 실시한 시험으로 그 기원은 명나라의 戚繼光이 절강성의 군사들을 대상으로 매월 여섯 번씩 조련 및 시험을 보았던 제도를 따른 것이다. 中甸은 龍虎營은 물론 訓練都監을 비롯한 中央의 五軍營에서 모두 실시했으며 地方軍은 제외되었다. 정해은, 「18세기 무예보급에 대한 새로운 검토」 『이순신연구논총』 9호, 2007, pp.228~230.

37) 『御營廳中甸臚錄』 二, 己亥(憲宗 5年) 十月初八日. 이날 치러진 中甸試를 치른 사람들은 哨官 28員, 勸武軍官 4員, 都提調軍官 1員, 別軍官 3員, 教練官 10員, 旗牌官 2員, 本廳軍官 46員, 出身軍官 10員, 別抄武士 41員, 騎士 137人, 別武士 25人, 馬醫 1人 등이 함께 시험을 치렀다. 이날의 기록을 마지막으로 하여 본 사료에서는 鴛鴦陣의 軍士武藝가 보이지 않는다. 이후의 中甸試를 살펴보면 提督劍과 偃月刀를 비롯한 몇 가지 軍士武藝와 주로 弓術과 火砲術을 주로 시험 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전의 鴛鴦陣 관련 기록을 살펴보면, 乙未年(憲宗 1年) 九月二十一日, 己丑年(純祖 29年) 五月二十日, 庚辰年(純祖 20年) 十月初二日 등에도 지속적으로 中甸試에서 鴛鴦陣의 軍士武藝를 시험 본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연번	과 목	總 施賞 내역	
2	砲	木四十二同 十五疋內	
3	技藝名 및 細部施賞	木十五同二十七疋內 * 『兵學指南』과 『火砲式』은 兵書이기 때문에 講論으로 시험 보았다.	
	兵學指南*		木一同 三疋內
	火砲式*		木二疋內
	鏡鈸		木十疋內
	偃月刀		木十一疋內
	銳刀		木一同 十四疋內
	挾刀		木二疋內
	提督劍		木六同 二疋內
	雙劍		木四疋內
	神劍		木五疋內
	旗槍		木十疋內
	元技 ³⁸⁾		木十八疋內
	狼筈		木二疋內
	棍棒		木一疋
	籐牌		木三疋內
	交戰		木十疋內
	拳法		木五疋內
步鞭	木四疋內		
鞭棍	木二疋內		

이렇게 朝鮮後期에 널리 활용된 鴛鴦陣은 이후 高宗代에 이르기까지 사용되었다. 당시 대왕대비였던 神貞王后 國喪행렬의 先驅禁軍의 움직임에도 원앙진이 나타나는 등 조선후기 전반에 걸쳐 널리 활용된 陣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³⁹⁾ 이렇게 壬亂 중에 도입한 『紀效新書』와 이를 바탕으로 조

38) 御營廳의 步軍 殺手 元技는 提督劍·偃月刀·雙劍·本國劍·用劍 등 다섯 가지의 技藝를 일컫는다. 겹치는 내용을 제외하면 本國劍과 用劍이 되는데, 보통 本國劍을 '新劍'이라 부르기도 하므로 이곳에서 元技는 用劍일 가능성이 높다.

39) 『承政院日記』 高宗 27年 5月 19日 丁亥.

선식으로 발전시킨 『兵學指南』의 원양진법이 임란이후에도 폐기되지 않은 배경에는 몇 가지가 있다. 가장 큰 배경은 『兵學指南』을 통한 군사훈련이 이미 보편적으로 軍營에 보급되었기에 그것을 쉽게 변화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軍營에서의 『兵學指南』에 대한 관심은 英·正祖代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꾸준히 中甸이나 試射을 비롯한 軍營의 각종 試才에서 이 兵書를 핵심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술사적으로 보면 壬亂 당시 도입된 鴛鴦陣이 英祖代 이후 왕권강화라는 측면에서 시도된 조선전기의 오위진법체제 복구론과 함께 騎兵위주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步兵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正祖代 『兵學通』의 간행과 함께 완성된 車·騎·步 三兵戰法の 확립에도 이러한 鴛鴦陣을 활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⁴⁰⁾

3. 鴛鴦陣에 사용된 軍士武藝의 種類와 실제

壬亂時 朝鮮에 도입된 浙江兵의 陣法 중 鴛鴦陣에서 사용되는 軍士武藝의 편성 핵심은 長短相濟라 하여 긴병기와 짧은 병기가 서로 구제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먼저 그 크기나 모양 면에서 가장 독특한 狼箠를 살펴보면, 狼箠은 가지가 달린 대나무 끝에 창날을 부착하고 대나무 가지마다 독을 바른 첩편을 심어 적의 근접공격을 막는 무기였다.⁴¹⁾ 이 무기는 전체길이 1장 5척에 무

40) 盧永九, 『朝鮮後期 兵書와 戰法の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pp.205~216.
 41) 『紀效新書』卷4, 狼箠解: 『武藝圖譜通志』狼箠, “原 戚繼光曰丈一丈五尺 重七斤, 有竹鐵二種, 附枝必九層十層十一層尤妙箠鋒重半斤以上亦可附枝 除近手二層外 餘俱用倒鉤冠其抄根後 要粗重手執于中要前後相稱 寧後重 毋前重(案:今制塗彩與竹長槍同) 增 兵仗記曰箠之竹宜節密枝堅抄加利刃務選力大之人授之用器而不爲器所累則工 茅元儀曰狼箠古所無也戚少係與倭戰水田中其爲陳四散不可施蒺藜(刺艸也凡營陳以鐵蒺藜布地)與拒馬木故以竹支之使其利刃不得遂入而今將吏欲以禦虜竹至沙漠枯枝欲墮胡馬驅馳安所用之登壇必究曰製箠之法用毛竹(每節出幹)長而多簞者末銳包鐵如小槍兩旁多留長刺其刺每雙用火熨之一直一鉤然後以熟桐油(荏桐早春開淡紅花狀如鼓子花成筒子可作油)灌之數以毒藥鋒利難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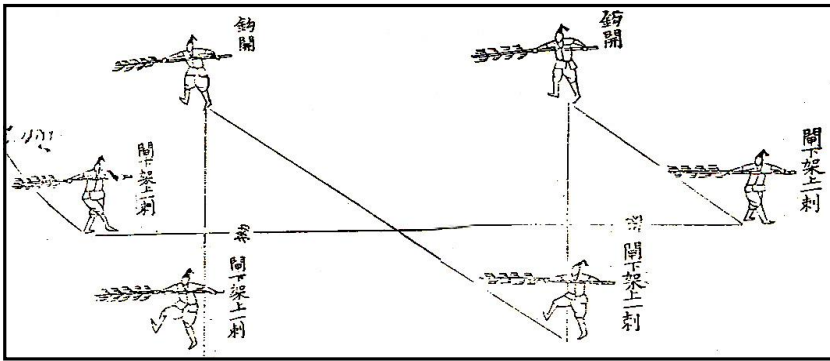
계 7근에 육박하는 대형무기에 속한다. 따라서 세밀한 움직임보다는 동작 선이 굵은 움직임을 통해 다가서는 적을 좌우로 적을 쓸거나 밀어내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狼筈의 움직임을 보면, 먼저 中平勢로 적을 대치하고 이후 '闌下勢-架上勢-一刺-闌下勢-架上勢-一刺-闌下勢-架上勢-一刺-闌下勢-架上勢-一刺'의 움직임으로 狼筈을 빙글빙글 돌리면서 앞을 향하여 조금씩 찢러 들어는 움직임이다.⁴²⁾ 다음은 '拗步退勢-闌下勢-架上勢-一刺-拗步退勢-闌下勢-架上勢-一刺'로 狼筈을 돌리며 뒤로 물러서서 적을 찢르는 자세이다. 그리고 그 다음은 오른쪽 측면으로 한 걸음 이동하면서 '鉤開勢-闌下勢-架上勢-一刺-鉤開勢-闌下勢-架上勢-一刺'를 만들어 전방의 左右를 빗자루로 쓸듯이 공격하는 자세를 반복하게 된다. 이러한 狼筈의 큰 움직임은 적을 비교적 먼 거리에서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반면 움직임이 크기 때문에 적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많아 단독사용으로는 어려움이 많았다. 따라서 반드시 狼筈手는 허리에 차는 칼인 腰刀를 패용하였는데, 이는 근접전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였다.

위와 같은 낭선의 실제적 움직임을 연속되는 그림의 형태인 總圖⁴³⁾로 확인하면 <그림 1>과 같다.

42) 『武藝圖譜通志』狼筈譜, “初作中平勢 旋舉一足作闌下勢 仍作架上勢一刺又一刺即進一步爲闌下勢以架上勢一刺 又進一步爲闌下勢以架上勢一刺 又進一步爲闌下勢以架上勢一刺又一刺 退一步作拗步退勢爲闌下勢以架上勢一刺 又以拗步退勢退一步爲闌下勢以架上勢一刺 仍向右邊轉一步作鉤開勢向左邊轉一步爲闌下勢以架上勢一刺還向右轉一步 爲鉤開勢向左邊轉一步爲闌下勢以架上勢一刺又一刺又以拗步退勢退一步爲闌下勢以架上勢一刺, 又以拗步退勢退一步爲闌下勢以架上勢一刺頓一足進一步作騎龍勢 畢.”

43) 總圖라는 명칭은 투로의 연속성을 표기하기 위하여 각 자세를 차례로 연결하여 그린 것이다. 그러나 『武藝諸譜』의 總圖는 해당 자세의 명칭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總圖가 되어 있고, 『武藝圖譜通志』에는 연결된 작은 그림으로 總圖를 표기하고 있다. 특히 『武藝圖譜通志』에는 기존의 總圖를 '연결된 보'라 하여 '總譜'라는 이름으로 따로 신고 있다. 따라서 각 자세의 연결된 모습을 확인하기에는 『武藝圖譜通志』상의 總圖의 형태가 시각적으로 확인이 분명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總圖의 일부분을 자료로 사용한다.



〈그림 1〉『武藝圖譜通志』狼筥總圖 중 狼筥의 핵심 자세44)

이러한 狼筥의 큰 움직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 짝으로 籐牌가 사용되었다. 籐牌의 경우는 기존 朝鮮軍들이 사용하는 무거운 長牌가 아니라 화살이나 표창의 직접적인 공격을 막을 수 있도록 견고하게 가공한 가벼운 등나무로 만든 껍였기 때문에 戰場에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다.45)

籐牌의 실제적인 움직임은 먼저 기수세로 적을 대적하고, 이후 ‘躍步勢-低平勢-金鷄畔頭’의 움직임으로 앞을 향하여 파고들어가 적을 밀어내고 창을 뽑아 던지고 이내 칼을 뽑아 적의 접근을 방어하는 것이다.46) 이러한

44) 『武藝圖譜通志』의 狼筥總圖 중 狼筥의 핵심적 자세에 해당하는 關下勢-架上勢-一刺-拘開勢-關下勢-架上勢의 그림이다. 이처럼 狼筥의 연결된 투로는 다른 무예와는 다르게 직각의 형태로 표현하였다. 이는 狼筥의 무게가 무거워 곡선을 그리듯 움직이는 것보다 직선적으로 步와 武器를 움직이는 것이 효과적이었기 때문이다.

45) 『紀效新書』卷4. 籐牌解 : 『武藝圖譜通志』 籐牌, “原 戚繼光曰老祖籐(本州拾遺曰省藤生南方深山皮夫大如指堪縛物齊民要術曰菘藤圍數寸重於可以代篾縛船及爲席)如指用之爲骨籐箴(音箴竹皮也)纏聯中心突向外內空庶箭入不及手腕週簷高出矢至不能滑泄及人內以籐爲上下二環以容執持每兵執一牌一腰刀闊(載也)刀手腕一手執鏢(音森刀鋒也)槍擲去彼必應急取刀隨牌殺入必置狼筥之下無筥則爲長器所制又曰北方無籐以柳木加革代之胡馬疾速又有盔甲不必用鏢槍(案:今制籐牌徑三尺七寸坐不足隱身當稍廣之如華式又今式執持處揉桑木爲之與華異).”

46) 『武藝圖譜通志』 籐牌譜, “初作起手勢 以刀從頭上一揮 旋作躍步勢 仍以刀循牌一揮 作低平勢 起立作金鷄畔頭勢 仍以刀循牌一揮 進一步爲低平勢 起立爲躍步勢 又以刀循牌一揮 進一步爲低平勢 起立翻身作滾牌勢以刀循牌一揮進一步爲低平勢起立作仙人指路勢 躍退一步作埋伏勢 又退一步爲埋伏勢 起立翻身爲滾牌勢 又以刀循牌一揮 退一步爲埋伏勢 起立爲仙人指路勢 退一步爲埋伏勢 起立翻身爲滾牌勢 又以刀循牌一揮退一步爲埋伏勢 起立爲躍步勢 舉一足繞足揮刀向右邊轉一步作斜行勢 畢.”

돌격적인 움직임 뒤에 곧바로 이어지는 '仙人指路勢-埋伏勢-埋伏勢-滾牌勢'로 뒤를 향해 빠르게 물러서며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자세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자세를 살펴보면, 狼筈手와 짝을 이뤄 합동으로 적을 공격하는 핵심적인 자세가 나타난다. 즉, 籐牌手의 여러 가지 자세 중 몸을 깊숙이 숙이면서 마치 狼筈 밑으로 숨어들어가는 자세가 핵심을 이루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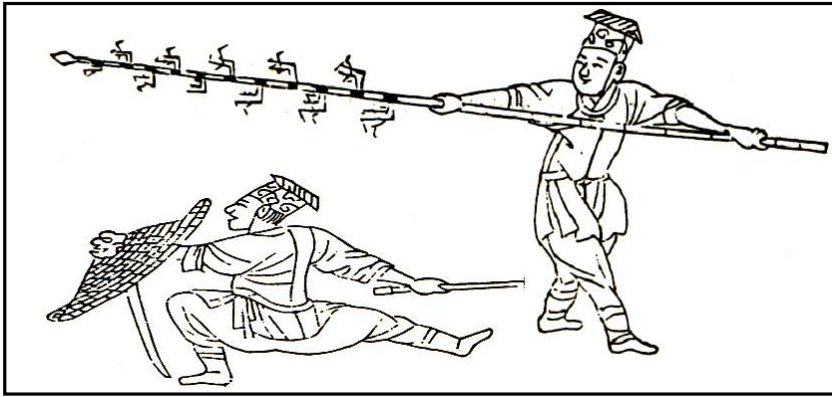
위와 같은 籐牌의 핵심이 되는 실제적 움직임을 연속되는 그림의 형태인 總圖로 확인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武藝圖譜通志』 籐牌總圖 중 籐牌의 핵심 자세47)

그리고 狼筈과 籐牌의 합동 공격 조합을 『武藝圖譜通志』의 그림을 이용하여 설명하면 <그림 3>과 같다.

47) 『武藝圖譜通志』의 籐牌總圖 중 籐牌의 핵심적 자세에 해당하는 躍步勢-低平勢-滾牌勢-低平勢-仙人指路勢-埋伏勢-埋伏勢-滾牌勢-埋伏勢의 연결모습이다. 이처럼 籐牌의 연결투로에서는 다른 무예와는 다르게 땅에 깊이 앉았다가 일어서는 자세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이는 狼筈과 짝을 이뤄 적을 공격하기에 나타난 무예 투로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 狼筥과 籐牌의 합동 공격법⁴⁸⁾

鴛鴦陣에 사용되는 무기의 조합 중 이러한 籐牌과 狼筥의 경우와 같은 조합을 이루는 軍士武藝로는 長槍과 鎧鉞가 있다.

長槍은 1丈 5尺의 긴 창으로 잘 부러지지 않도록 합목방식의 형태로 제작하여 사용하였다.⁴⁹⁾ 장창의 핵심자세는 먼저 ‘太山壓卵勢-美人認針勢’로 적을 대적하고 이후 앞으로 밀고 들어가며 ‘滴水勢-指南針勢-滴水勢-指南針勢’를 반복하여 긴 창끝을 위아래로 흔들며 적의 진입을 막았다.⁵⁰⁾ 그리고 다음 자세로는 ‘鐵牛耕地勢-十面埋伏勢’로 적을 찌르고 마찬가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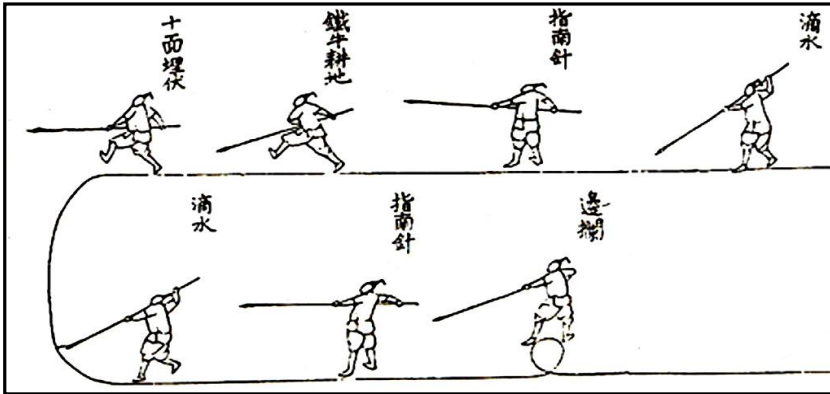
48) 본 그림은 朝鮮 正祖代 편찬된 군사무예서인 『武藝圖譜通志』에 수록된 狼筥과 籐牌의 그림을 이용하여 필자가 조합하였다. 그림 중 狼筥의 자세는 拘開勢로 빗자루로 좌우를 쓸 듯이 움직이는 자세이며, 등패의 자세는 狼筥의 움직임에 맞맞춰 자세를 숙이고 표창을 던지는 低平勢이다.

49) 『紀效新書』 卷4, 長槍解 : 『武藝圖譜通志』 長槍, “戚繼光曰長一丈五尺槍桿(音汗木挺也杆俗字俗訓槍柄)稠木第一合木輕而稍軟次之要劈開者佳紋斜易折攢聚也竹腰軟必不可用北方乾燥竹不可用東南竹木皆可槍匠須知用槍大意方做如穀(音邊張也孟子羿之教人射必志於穀)教之十日便悟背緊(音罄背肋肉結處也莊子養生主技經背肋緊之未嘗)後手要粗可盈把從根起漸漸細直至頭而止腰粗則硬強腰細則無力最忌抄(音杳木末也)粗腰硬.”

50) 『武藝圖譜通志』 長槍譜, 長槍前譜, “初作太山壓卵勢 仍作鐵鑿竿勢 抽槍作四夷賓服勢 便作滴水勢作指南針勢 卽連足進一步 又以滴水指南針勢 連進二步便作鐵牛耕地勢旋作十面埋伏勢一刺 以滴水指南針勢退一步 又以滴水指南針勢 退一步立原地 以滴水指南針勢進一步 又以滴水指南針勢連進二步 便爲鐵牛耕地勢 以十面埋伏勢一刺又爲滴水指南針勢 仍作邊攔勢 急轉身回槍退一步 作白猿拖刀勢 又退一步立原地 作騎龍勢 又以滴水指南針勢進一步 卽爲鐵牛耕地勢 以十面埋伏勢一刺 仍爲滴水指南針勢 以鐵鑿竿勢點槍 作太公約魚勢 畢.”

‘適水勢-指南針勢’를 반복하며 한걸음씩 뒤로 물러서는 방식이다. 만약 적이 급격하게 돌진해올 경우는 ‘邊攔勢-白猿拖刀勢-騎龍勢’의 움직임으로 신속하게 창과 몸을 뒤집어 물러서고 바로 공격하는 방식이었다.

위와 같은 長槍의 핵심이 되는 실제적 움직임을 연속되는 그림의 형태인 總圖로 확인하면 <그림 4>와 같다.



<그림 4> 『武藝圖譜通志』長槍總圖 중 長槍의 핵심 자세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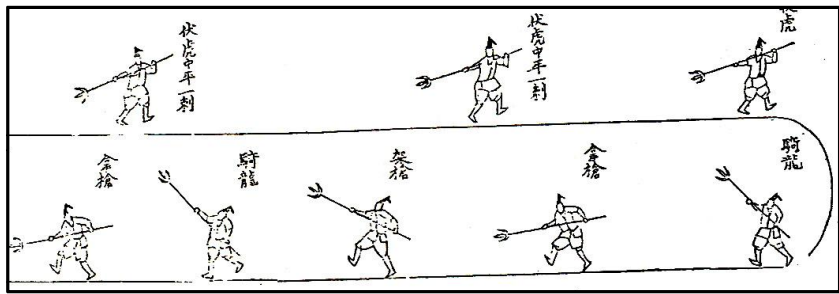
그러나 역시 앞서 설명한 狼筈처럼 무기가 길고 그 움직임이 크기 때문에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었다. 물론 長槍 역시 弓矢를 함께 패용하기는 했으나, 弓矢의 경우는 遠射武器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접전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長槍의 큰 움직임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이 鏡鉞였다. 鏡鉞는 가지가 세 개 달린 창으로 창날 사이에 적의 무기를 찍어 눌러 공격하는 자세들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⁵²⁾

51) 『武藝圖譜通志』의 長槍總圖 중 長槍의 핵심적 자세에 해당하는 適水勢-指南針勢-鐵牛耕地勢-十面埋伏勢-適水勢-指南針勢-邊攔勢의 연결 모습이다. 이처럼 長槍의 연결투로 역시 큰 무기로 인해 長槍을 위아래로 움직이며 적의 근접을 막는 형태로 확인된다. 특히 뒤로 물러서며 適水勢-指南針勢를 반복한 후 邊攔勢를 취한 것은 빠르게 뒤로 물러서며 한 돌아 적의 창날을 피하는 방식임을 알 수 있다.

52) 『武藝圖譜通志』鏡鉞, “原 威繼光曰長七尺六寸重五斤柄杪合鉞口根粗一寸至杪漸漸細正鋒與橫股合爲一柄若中鋒與橫股齊則不能澹刺故中鋒必高二寸且兩股平平可以架火箭(案:第一圖戚書及武備志圖書集成皆如此第二圖從訓營所購華制摸出者其三鋒合根處以錫合作兩龍首左右根皆從呀口中出堅利異常今制簿弱往往別作兩支穿其中貫於正鋒可脫可合如漸造則當以第二圖爲式).”

당파수의 움직임은 보면 먼저 朝天勢로 적을 대적하고 앞으로 나가면서 '伏虎勢-騎龍勢-一刺'를 이용하여 상대의 무기를 찍어 눌러 재끼고, 곧바로 적을 찌르는 움직임이다.⁵³⁾ 이러한 일련의 동작을 취한 이후 뒤로 물러 설 때도 역시 '伏虎勢-一刺'를 반복하여 공격해 들어오는 적의 무기를 찍어 눌러 밀어내면서 곧 이어 바로 찌르는 자세가 반복된다. 특히 빠르게 돌격할 경우에는 '騎龍勢-拿槍勢-架槍勢'를 이용하여 적의 전면에 鏡鉞를 상하로 움직이는 자세를 취하였다.

위와 같은 鏡鉞의 핵심이 되는 실제적 움직임을 연속되는 그림의 형태인 總圖로 확인하면 <그림 5>와 같다.



<그림 5> 『武藝圖譜通志』 鏡鉞總圖 중 鏡鉞의 핵심 자세⁵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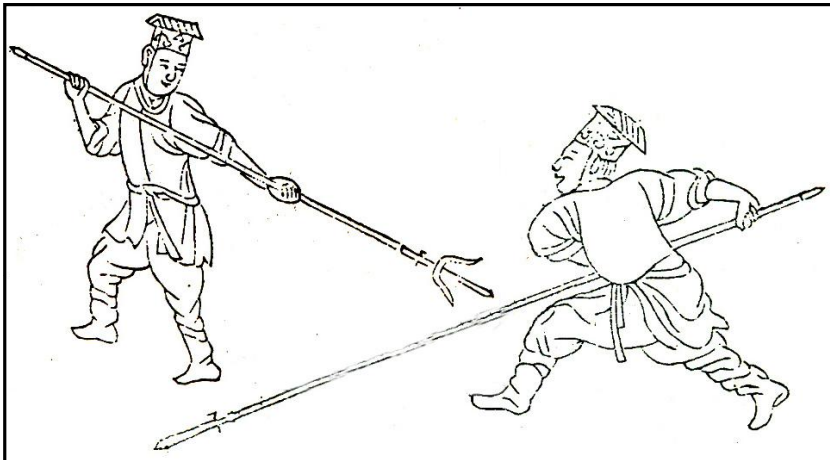
또한 여타의 무기처럼 당파의 경우도 火箭을 장착하여 함께 운용하는 전술을 취했다. 화전 역시 원사무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長槍과 鏡

53) 『武藝圖譜通志』 鏡鉞譜, “初作朝天勢 旋作中平勢一刺進一步作進步勢以中平勢一刺 又進一步爲進步勢以中平勢一刺 又進一步以中平勢一刺 仍作伏虎勢 進一足作騎龍勢 進一足爲中平勢一刺, 退一步爲伏虎勢以中平勢一刺 又退一步爲伏虎勢以中平勢一刺 又退一步爲伏虎勢以中平勢一刺 仍爲伏虎勢 進一足爲騎龍勢連足進一步作拿槍勢進一足作架槍勢進一足爲騎龍勢連足進一步爲拿槍勢進一足爲架槍勢 仍爲伏虎勢進一步以中平勢一刺退一步爲伏虎勢一刺 又退一步爲伏虎勢一刺 又退一步爲伏虎勢一刺 仍爲伏虎勢向右邊轉進一步以騎龍勢畢.”

54) 『武藝圖譜通志』의 鏡鉞總圖 중 鏡鉞의 핵심적 자세에 해당하는 伏虎勢-中平勢-一刺-中平勢-一刺-中平勢-騎龍勢-拿槍勢-架槍勢-騎龍勢-拿槍勢의 연결된 모습이다. 이처럼 鏡鉞는 伏虎勢로 적의 긴무기를 찍어 누른후 中平勢로 한번 찌르는 자세를 취하거나, 拿槍-架槍-騎龍으로 상대의 무기를 창날 사이에 걸어 비틀면서 돌리는 자세가 주를 이룬다. 이는 鏡鉞를 이용하여 적의 무기를 제압하고 있으면 주변의 짝이 되는 長槍 혹은 籐牌가 적을 擊殺하는 방식임을 알 수 있다.

鈹 역시 狼筈과 藤牌처럼 짝을 이뤄 적을 공격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러한 장창과 낭선의 상호보완적인 움직임은 『武藝圖譜通志』의 그림을 이용하여 살펴보면 <그림 6>과 같다.



<그림 6> 長槍과 銳鈹의 공격법⁵⁵⁾

위의 <그림 6>은 銳鈹가 적의 長槍을 제압하는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이때 당파와 짝을 이룬 장창수는 적의 장창수가 움직이지 못할 때 재빨리 적을 제압하게 된다. 그런데 원앙진은 단순히 장창과 당파, 등패와 낭선의 조합의 형태뿐만 아니라 12명이 한 대를 이루기 때문에 장창이 등패를 보호하기도 하고 장창이 낭선을 보호하는 등의 다양한 相呼保合적인 움직임을 만들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군사무예의 상호보합적인 움직임을 『兵學指南演義』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55) 본 그림은 朝鮮 正祖代 편찬된 군사무예서인 『武藝圖譜通志』에 수록된 銳鈹와 長槍의 그림을 이용하여 필자가 조합하였다. 특히 당파의 핵심자세가 적의 긴 무기를 짝어 누르는 용도가 주를 이루기에 장창과 보합이 아닌 적 장창과의 대적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때 사용된 자세는 당파의 伏虎勢이며 장창은 찢러 들어가는 철번간세이다. 만약 이렇게 당파수가 적의 긴 창을 짝어 누르고 있으면 함께 움직이는 장창수가 대신 적을 찢러 죽이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당파수의 選兵기준은 담력이 센 사람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선병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 중에서 후술하겠다.

長短相濟⁵⁶⁾ 第四 - 두 등패수가 나란히 진열하거든 낭선수가 한 패수를 비호하고, 장창수는 언제 두 명이 각기 한 패수와 낭선수를 나누어 보호하며, 당파수는 장창수가 지치는 것에 대비한다. 이는 적을 죽이고 필승을 거둘 수 있는 제일의 戰法이니, 낭선수로 등패수를 비호하고, 장창수로 낭선수를 구원하고, 당파수로 장창수를 구원하게 하여야 한다.⁵⁷⁾

또한 각각의 長槍手, 鎗鋌手, 狼筈手, 等牌手는 鴛鴦陣 전체의 長短 원리에 맞게 또 하나의 무기를 운용하게 되는데, 다음의 사료는 이러한 내용을 잘 보여준다.

刀手와 牌手는 모두 적과 근접해 있을 때에 사용하는 兵器를 휴대하였으니, 각기 鏢槍 하나씩을 주어 선봉을 삼고, 또 낭선에 의지하여 장거리 병기로 삼게 하였다. 狼筈手는 狼筈을 장병기로 삼고, 각기 腰刀를 하나씩 휴대하여 단거리 병기로 삼아야 하니, 방패 또한 낭선의 단병인 썸이다. 창수는 장창을 단병기로 삼고 겸하여 弓矢를 익히게 하여 장병기로 활용하게 하며, 당파수는 당파를 단거리 병기로 삼고 겸하여 火箭을 주어 장병기로 운용하게 하였다.⁵⁸⁾

이러한 鴛鴦陣의 구성에서 籐牌的 刀手⁵⁹⁾와는 다르게 雙手刀⁶⁰⁾를 단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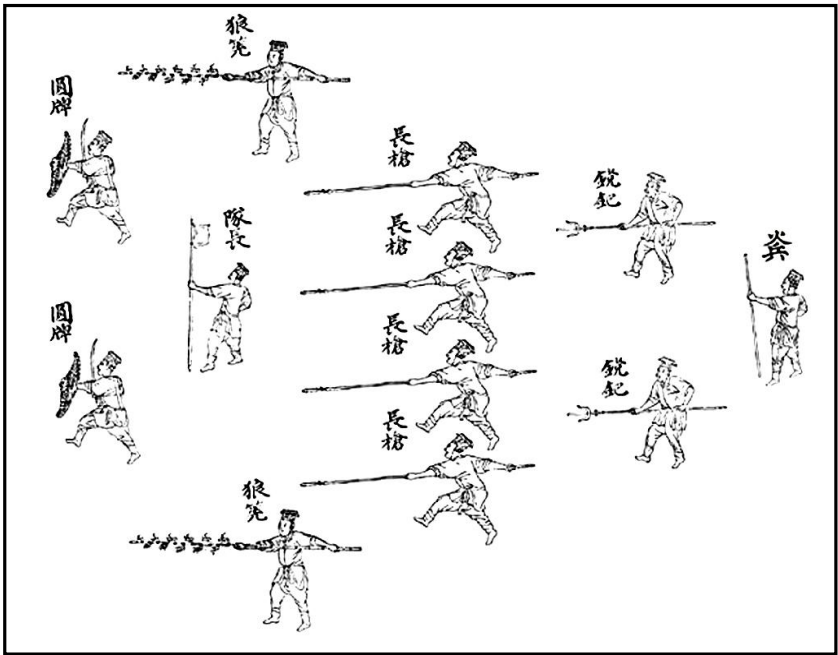
-
- 56) 『長短相濟』에서 ‘濟’는 긴 병기를 휴대한 병사가 짧은 병기를 휴대한 병사를 구원하고, 짧은 병기를 휴대한 병사가 긴 병기를 휴대한 병사를 구원하는 것을 말한다.
- 57) 『兵學指南演義』營陣正數 2卷, 器械, “長短相濟第四 二牌平列狼筈各覆一牌 長槍每二技各分管一牌一筈 短兵防長槍進老此及殺賊必勝 第一戰法 筈以用牌槍以救筈鋌以救槍.”
- 58) 『兵學指南演義』營陣正數 2卷, 器械, “共管者夾衛之意分救者獨應之意(槍鋌二種殺器也 牌筈二種禦器也 又槍與筈短中長也 牌與鋌短中短也 比陣一長一短 一殺一禦 雜然成利觀者詳之).”
- 59) 籐牌는 비록 적의 총탄을 방어하지는 못하나 화살과 돌, 창과 칼을 모두 가릴 수 있도록 甲冑로 대응할 수 있었다. 특히 병사들은 각기 방패 하나와 요도 하나를 휴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한 손에는 鏢槍 하나를 잡고 있다가 긴 병기를 휴대한 적을 만나 상대할 때에 틈이 없으면 창을 잡아 鏢槍을 던지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면 적이 표창을 맞든 맞지 않든 반드시 이에 대응하므로 이때 급히 손에 칼을 잡고 등패로 막으면서 적의 품안으로 달려 들어간다. 그리하면 일단 적의 창 안으로 들어가면 적의 창은 무용지물이 되므로 반드시 적을 이기게 되어 있다.
- 60) 『武藝圖譜通志』雙手刀, “原,(本名長刀俗稱用劔平劔)戚繼光曰 刀長五尺後用銅護刀一尺柄長一尺五寸共長六尺五寸重二斤八兩此自倭犯中國始有之彼以此跳舞光閃而前我兵已奪氣矣

으로 운용하는 병사가 원양진에 들어가기도 하였는데, 雙手刀를 운용하는 병사는 원거리에서는 조총을 사용하다가 적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쌍수도를 뽑아 들고 短兵接戰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鴛鴦陣의 자원 중 火兵이라하여 불을 피우고 밥을 짓는 사람을 추가하였는데, 火兵은 棍棒⁶¹⁾에 짧은 칼날을 달아 뜻밖의 변고에 대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와 같은 鴛鴦陣에 사용된 무기 및 무예의 확대는 壬亂 당시보다 步兵의 전술적 가치를 높이는 것이었다. 이전에는 佛狼機와 虎準砲 등 지원화력을 바탕으로 움직였다면, 壬亂을 거치면서 戰場의 환경이 보다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鴛鴦陣 단독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鳥銃이나 弓矢 등 원사무기를 함께 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鴛鴦陣의 사용된 무기 중 長槍과 狼筈은 그 길이 면에서 단병기 중 가장 긴 병기에 속하였다. 이렇게 길이가 긴 병기는 적의 기병을 상대하기 효과적인 것으로 원양진처럼 群集을 이뤄 陣法을 구사할 경우 효과적인 기병방어책이 될 수 있었다. 이는 조선후기 胡亂을 거치면서 淸 騎兵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어 肅宗代 이후 지속적으로 기병강화 정책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밀집보병을 통한 騎兵의 방어법으로도 확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⁶²⁾ 위와 같이 다양한 兵種으로 구성된 鴛鴦陣의 기본 진형을 그림으로 살펴보면 <그림 7>과 같다.

倭一躍丈餘遭之者兩斷緣器利而雙手使用力重故也今如獨用則無衛惟鳥銃手可兼賊遠發銃賊近用刀 案 本名長刀今呼雙手刀以有雙手使用之文故也 今亦不用此制 惟以腰刀代習但存其名耳 茅元儀曰 長刀倭奴之制甚利于步古所未備然 中華古今注曰 漢世傳高帝斬白蛇劍長七尺漢書廣川惠王越(漢景帝子也)孫去作七尺五寸劍 後漢書馮異傳車駕送至河南賜以七尺玉具劍 刀劍錄 周昭王鑄五劍 各投五嶽名曰鑕嶽長五尺石季龍刀長五尺慕容垂二刀長七尺一雄一雌則長刀之來亦舊矣.”

61) 『武藝圖譜通志』棍棒, “原 戚繼光曰長七尺重三斤八兩刃長二寸有中鋒一面起脊一面有血槽磨精重四兩此器法中皆一打一刺而無刃以何爲刺今加小刃但刃長則棒音傍頭無力不能壓他棒只可二寸形如鴨嘴打則利棒刺則利刃兩相濟矣南方曰棍北方曰白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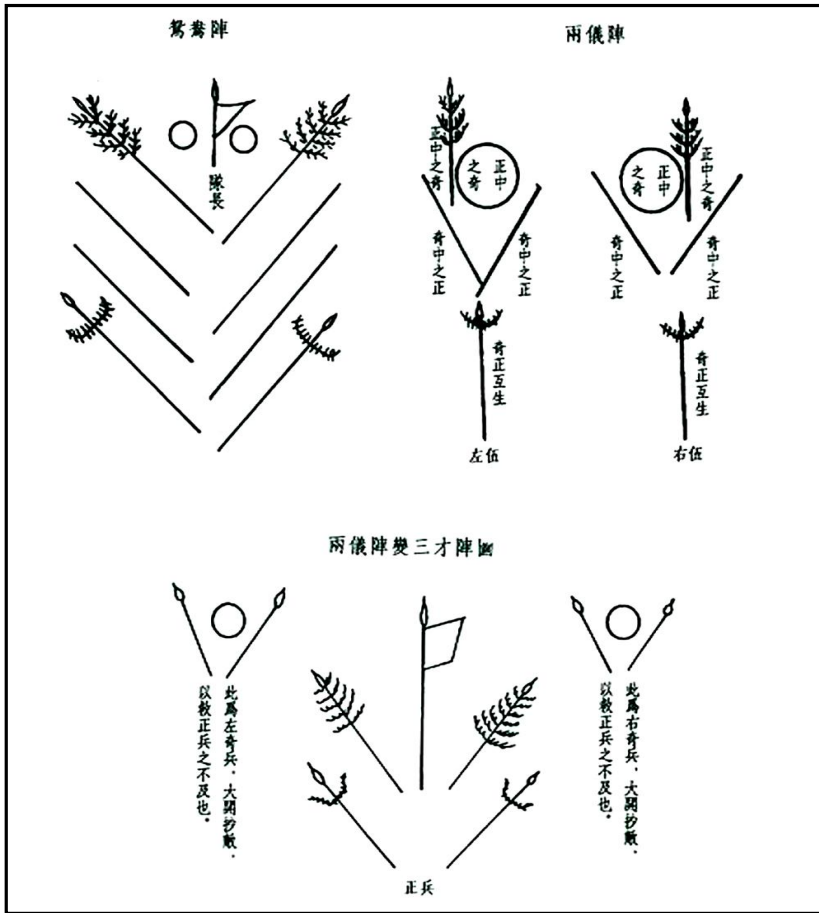
62) 肅宗代 이후 朝鮮의 騎兵 強化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였다. 姜錫和, 「조선후기 平安道の 別武士」 『韓國史論』 41·42집, 1999 ; 姜錫和, 「朝鮮後期 咸鏡道の 親騎衛」 『韓國學報』 89호, 1997 ; 盧永九, 「18세기 騎兵 강화와 지방 武士層의 동향」 『한국사학보』 13, 2002 참고.



〈그림 7〉 鴛鴦陣의 대형 전개도

그리고 鴛鴦陣의 진형 변화는 크게 兩儀陣과 三才陣으로 변화되는데, 먼저 兩儀陣은 1대를 2伍로 편성하여 패수 한명과 狼筄手 한명이 나란히 앞에 있고, 長槍手 두 명이 나란히 뒤를 받쳐주어 마치 새가 양 날개를 펼치듯 鴛鴦陣이 두 개로 분열하는 진을 말한다. 兩儀陣의 경우는 梅花陣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그리고 三才陣은 장창수 두 명이 등패수 한명을 함께 보호하고, 낭선수 두 명이 나란히 서 있으면 두 당파수가 낭선수를 한명씩 나눠 적을 공격하는 진법을 말한다. 이러한 鴛鴦陣의 진형 변화를 『紀效新書』의 陣法圖를 통해 살펴보면 〈그림 8〉과 같다.

鴛鴦陣의 경우 기본 12명으로 구성된 一隊를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진형을 이룰 때에는 보통 4개의 대를 一旗로 편성하여 사방을 방어하는 方陣을 펼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합방식에 의해 몇 개의 旗, 몇 개의 哨, 몇 개의 司, 몇 개의 營으로 분수를 조정하여 편성하였다.



〈그림 8〉 鴛鴦陣·兩儀陣·三才陣의 진법도

만약 이렇게 몇 개의 원양진이 모여 전투에 참가했을 때 大隊 배치 요령을 보면 먼저 각 3隊가 나란히 진열하여 하나로 보이게 하는데, 이때 각대의 거리는 3丈의 거리를 유지하게 된다. 그리고 각각 小隊는 먼저 조총수들이 短兵接戰을 치르는 병사 앞으로 나와 5보 간격으로 1열로 배치된다. 보통 적이 백보 정도 거리에 도달하면 전투를 시작하였다. 이렇게 鴛鴦陣 大隊를 이용하여 전투하는 방식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적이 百步 안에 있을 때에는 조총수가 일제히 발사하고, 다음 앞 층에 있는 당파수와 궁수가 발사하며, 다음 뒤 층에 있는 살수가 나와 싸운다. 두 번 전진하고 두 번 후퇴하여 조총수의 앞에 이르면 조총수가 급히 나아가 일제히 발사한다. 그 다음에는 후퇴하여 돌아온 당파수와 궁수가 발사하며 다음에는 앞층의 사수가 나가 싸우되 두 번 전진하고 두 번 후퇴하여 조총수가 앞에 이르며, 다음에 두층에 있는 사수가 함께 나와 일제히 싸운다. 그리하여 적이 패주하거나 각기 원대를 나누어 꽃잎처럼 겹으로 후퇴하여 모두 원위치로 돌아온다.⁶³⁾

위와 같은 鴛鴦陣의 大隊운동 상황을 보면, 조선후기 화약무기 발달에 의해 戰場의 상황이 빠르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병사 개개인이 익혔던 軍士武藝는 여전히 전장에서 활용이 높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鴛鴦陣은 군집을 이루는 특성 때문에 야전에서 적의 긴사거리의 火砲에 노출될 경우 오히려 기존의 陣法보다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었기에 후술하겠지만 選兵을 통한 임기응변의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12명 단위의 부대로 움직이는 것을 기본 전술로 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4. 鴛鴦陣의 陣法 構成과 軍士武藝의 特性

조선후기 軍營에 정착된 鴛鴦陣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성은 12명의 소부대 단위전투 형태다. 이는 朝鮮前期의 陣法 운영과도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데, 조선전기의 경우는 主敵의 개념이 북방의 女眞族을 중심으로 잡혔기에 진법 또한 여진족을 방어하는 측면이 강하였다. 여진족의 주력군 체제는

63) 『兵學指南演義』營陣正毅 2卷, 約禮, 作戰第十五, “賊在百步之內 鳥銃手齊放次前層鈹弓手放射次 後層殺手出戰再進再退至鳥銃之前銃手急出齊放 次退面層內鈹弓手放射次前層殺手出戰再進再退 至鳥銃之前立定次兩層殺手俱出一 戰賊敗各分原隊間花疊退俱面信地.”

주로 50명을 1隊로 만들어 빠른 騎兵의 돌과전술이 핵심이었다.⁶⁴⁾ 따라서 이를 견제하기 위해 편성된 조선군 역시 騎兵이 핵심 병종으로 운용될 수밖에 없었다.

女眞族의 빠른 기병전술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兵書인 『陣圖之法』과 『癸丑陣說』에는 50명을 기본 전투 단위로 편성하고 다수의 예비 병력인 遊軍을 두어 적의 임기응변에 대처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렇게 구분된 기본 전투 단위에서 전체의 약 40% 이상을 騎兵으로 편성하여 女眞族의 속도전에 대응하는 편성방식을 취했다.⁶⁵⁾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선전기 朝鮮軍 편제를 살펴보면, 騎兵과 步兵의 편성 숫자가 5:5 정도로 동일한 인원을 배치하고 있다.⁶⁶⁾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숫자상으로 볼 때 동일한 인원이며 보통 騎兵 1인당 步兵 5~7명을 상대할 수 있으므로, 전투력을 바탕으로 비교해 본다면 朝鮮軍은 步兵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중으로 騎兵을 편성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⁶⁷⁾

반면 조선후기에 운영된 駕騫陣의 경우는 12명 단위의 步兵 위주의 陣法으로 보통 鳥銃手나 砲手들의 사전 사격 후 短兵接戰을 벌이는 방식이었다. 특히 4隊나 혹은 그 이상의 대가 모여 大隊를 이루었을 때에도 그 움직임은 기본 12명 단위의 隊움직임과 큰 차이가 없었다. 朝鮮 正祖代 편찬된 兵書인 『兵學通』의 <그림 9> 一旗方陣圖를 보면 이러한 駕騫隊 大隊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駕騫陣의 핵심이 12명 단위 안에서 적의 長·短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 및 공격하는 방식을 취했기에 朝鮮前期의 陣法 운용에 비하여 臨機應變에 대한 능력이 높아졌으리라 판단된다.

64) 『兵將設』 「諭將篇」, “初女直無步卒, 惟騎兵千餘, 刻小木牌, 係人馬, 爲號五十人爲一隊, 前二十人, 重甲持矛戈, 後三十人, 輕甲操弓矢. 每遇敵, 必二人躍馬而出, 觀陳之虛實, 四面結隊二馳擊. 百步之外, 弓矢齊發, 無不中者, 其分合出入應變周旋, 人自爲戰, 所以恒勝.”

65) 盧永九, 앞의 논문, 2002, pp.15~16.

66) 『陣法』 「分數」, “每部各有四統〔共一百統 騎兵二統 一爲戰 一爲駐 步兵二統 一爲戰 一爲駐 兵小而一統人數雖不滿隊 四統之名不可闕〕.”

67) 일반적으로 기병과 보병의 전투력의 차이는 보통 기병 1명 대 보병 5~7명을 상대하는 것으로 전투력을 비교한다. 특히 宣祖實錄을 보면 騎兵과 步兵의 전투력의 차이를 1:10 정도로도 기병의 전투력을 우세하게 평가하기도 하였다. 『宣祖實錄』 卷114, 宣祖 32年 6月 己亥.

조선전기의 진법 운용시 군사들이 사용한 주력 무기는 騎射隊는 弓, 騎槍隊는 槍 그리고 步兵 중 火筒隊는 銃筒, 弓手隊는 弓, 槍劍隊는 槍과 劍으로 기본 무장을 하여 전투를 치렀다. 다음의 사료를 보면 朝鮮前期 陣法에서 사용된 군사무기를 확인할 수 있다.

中軍은 자기 진터를 튼튼하게 지키면서 대열을 맞추어 움직이지 않은 채로 사면을 통제하고, 각 軍은 사면의 안팎에 방패수를 세워 제자리를 굳게 지키면서, 步兵 槍手와 長劍手 및 方牌手의 바깥 주변에 나와 2열로 배열하는데, 前所의 騎射兵과 中所의 騎射兵, 前所의 騎槍兵과 中所의 騎槍兵, 前所의 火筒手 및 弓手와 中所의 火筒手 및 弓手が 횡렬로 진 앞에 벌여 서서 상대편 적군과 마주 대한다.⁶⁸⁾

이러한 朝鮮前期의 陣法에 활용된 軍士武藝는 조선후기 鴛鴦陣에 등장하는 다양한 兵種과는 대조적으로 군사 개개인이 一人一技의 방식을 취하므로써 단순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주적인 女眞族의 공격방식이 빠른 기병돌격전술이기에 이를 방어하기 위해 선봉 기병대를 중심으로 후방에는 단순하지만 안정적인 진형을 구축해야 했기 때문이다. 반면 朝鮮後期 鴛鴦陣의 경우는 '刀手와 牌手에게는 鏢槍, 狼筈은 腰刀, 長槍은 弓矢, 銃鉞는 火箭'⁶⁹⁾을 함께 운용할 수 있게 훈련하여 臨機應變의 능력을 강화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임기응변의 능력은 앞서 鴛鴦陣에 사용된 군사무예의 종류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병종의 다양화를 통한 조화로운 隊 구성이 가능했기에 얻을 수 있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鴛鴦陣의 臨機應變 능력은 앞서 설명한 兩儀陣과 三才陣으로의 변화 모습에서 찾을 수 있는데, 각각의 鴛鴦陣이 大隊를 이뤘을 때에도 적 진형의 상황에 따라 빠른 진형변화가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68) 『癸丑陣說』 「應敵」.

69) 『兵學指南演義』 營陣正毅 2卷.

수 있다. 먼저, 鴛鴦陣의 전면에서 방어를 책임졌던 籐牌의 경우는 그 무예의 특성에 따라 신체가 유연한 자를 중심으로 선별하게 하였다. 다음의 사료를 보면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방패는 길이가 몇 자에 불과하니, 몸을 가리는 것이 신묘하다. 그러므로 몸집이 중간인 사람을 취한 것이요, 또 일어나고 엎드리는 것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만 적을 방어할 수 있으므로 신체가 유연한 자를 선발하는 것이다.⁷¹⁾

그리고 籐牌와 짝을 이뤄 장병공격을 했던 狼筵의 경우 選兵 조건이 '신체가 풍만하고 몸집이 큰 사람으로 적이 보고 위압감을 느끼게 만드는 사람이다. 이 狼筵은 무거워서 다루기가 힘들기 때문에 힘이 센 사람을 선발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⁷²⁾라고 하였다. 또한 그 크기 면에서 狼筵에 뒤지지 않는 長槍의 경우는 '힘이 많이 들고 기구가 길어서 사용하는 자가 쉽게 피로해지므로 반드시 精神과 骨力이 좋은 자를 쓰는 것이다'⁷³⁾라고 하였다. 그리고 鏡鈹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 핵심적 움직임이 적의 무기를 찍어 눌러 공격하는 것이 주된 임무라서 '반드시 용맹과 위엄이 있는 자를 뽑아 맡겨 주는 것이다'⁷⁴⁾라고 하였다. 이는 鏡鈹의 자세 중 伏虎勢 및 拿槍勢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적의 창을 鏡鈹로 찍어 누르면 한 짝이 되는 長槍이 달려들어 적을 찢어야 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밥을 짓던 火兵은 '마소나 기르는 남은 병졸이지만, 용렬하고 어리석은 자들도 버리지 않는 것이 장수의 無用 변화시켜 有用으로 삼는 법이다'⁷⁵⁾라고 하여 나머지 병사들 중 군사력이 조금 떨어지는 병졸로 채웠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각각의 軍士武藝 대한 選兵 이유를 사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71) 『兵學指南演義』營陣正毅 2卷 編兵, 籐牌.

72) 『兵學指南演義』營陣正毅 2卷 編兵, 狼筵.

73) 『兵學指南演義』營陣正毅 2卷 編兵, 長槍.

74) 『兵學指南演義』營陣正毅 2卷 編兵, 鏡鈹.

75) 『兵學指南演義』營陣正毅 2卷 編兵, 火兵.

兵士들이 휴대하고 있는 器械(兵器)는 동물들이 발톱과 이빨, 비늘과 껍질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아서 자신에게 맞는 병기를 잘 활용하면 적을 제압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도리어 적에게 제재를 받게 된다. 이 때문에 반드시 신체가 연약한가 장대한가를 가려서 각각 병기를 나누어 주는 것이다.⁷⁶⁾

위와 같은 군사들의 선병 방법을 통해 鴛鴦陣은 가장 효과적인 부대편성 방식을 취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앞서 설명한 臨機應變의 대응력을 비롯한 전투력 증대에 鴛鴦陣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맺 음 말

壬辰倭亂 開戰 초기 朝鮮과 明이 접한 日本軍의 短兵接戰術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진법운용체계를 무력화시키기에 충분했다. 구체적으로 신립의 彈琴臺 전투를 비롯하여, 遼東 副總兵 祖承訓이 이끄는 明의 1차 援軍인 요동군들이 전술적 한계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明의 절강병이 평양성 탈환전투에서 보여준 鴛鴦陣이라는 새로운 진법운용체계가 조선군에 보급되게 된다. 따라서 訓練都監의 창설과 맞물려 신설된 砲手, 射手, 殺手의 三手兵 체제 또한 이러한 新陣法 도입의 연장선에서 내려진 정책적 결정이었던 것이다.

鴛鴦陣은 棍, 籐牌, 狼筈, 長槍, 鎗, 長刀 등의 다양한 長·短武器의 결합을 통해 적의 단병접전술을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핵심인 진법이었다. 먼저, 狼筈은 가지가 길게 달린 대나무에 가지에는 쇠심을 박아 독을 묻히고, 그 끝에는 창날을 설치해 적의 접근을 막는 무기였다. 그리고 狼筈과 짝을 이루는 籐牌는 등나무를 여러 번 물에 삶고 기름으로 가공하여 적

76) 『兵學指南演義』營陣正毅 2卷 編兵, 選兵.

의 화살이나 鏢槍이 뚫지 못하도록 견고하게 만든 방패였다. 이러한 狼筈과 籐牌의 합동 공격은 무기의 길이에 따른 장점과 단점을 서로 보강하게 하는 相生의 효과를 보게 하였다. 그리고 長槍은 쉽게 부러지지 않도록 합목으로 장창을 만들어 사용하였고, 이와 짝을 이루는 鏡鉞는 창날이 세 개인 형태로 적의 무기를 날 사이에 걸어 적의 공격을 무력화시킨 무기였다. 이러한 鏡鉞의 움직임은 보강하기 위하여 長槍은 직선적이면서도 적의 공격을 對賊·欺瞞하는 방식 후 찌르기 형태의 무예 투로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위에 언급한 다양한 병기들이 서로 조화를 이뤄 상생하는 鴛鴦陣의 특징은 비록 步兵 위주의 구성이지만, 鳥銃과 火砲의 선후 배치를 통해 조선 후기 급변하는 戰場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진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壬亂期 朝鮮에 도입된 鴛鴦陣은 이후 英祖代에는 國王의 능행차시 御駕를 수행하는 護衛軍의 진법운용에서도 사용되었으며, 禁軍의 군사사열에서도 사용될 정도로 中央軍營에 많이 보급되었으며, 正祖代에 편찬된 兵書인 『兵學通』에 鴛鴦陣을 활용한 方陣 훈련도가 들어갈 만큼 보편적으로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兵學通』에 실린 鴛鴦陣의 方陣 변형도를 정치사적으로 보면 英祖代부터 논의되었던 五衛體制 復舊論의 실제적 운용의 모습을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朝鮮前期 오위체제에 활용한 五衛陣法의 복구를 통해 조선 후기의 國王이 강력한 國王權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陣法의 변화를 추구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國王 正祖의 경우는 새롭게 건설한 華城의 防禦體系를 五衛體制的 형태인 新豐衛, 長安衛, 八達衛, 蒼龍衛, 華西衛 등으로 당시의 일반적인 군편제 방식과는 다른 朝鮮前期 五衛體制的 名稱을 고집했기에 이러한 판단은 가능하리라 본다.

그리고 華城軍制에서도 華城을 방어하는 步兵들의 대부분이 鴛鴦陣의 훈련법에 따라 軍士武藝를 익힌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純祖代의 기록인 『萬機要覽』이나 『御營廳中甸膽錄』의 시에 기록에도 鴛鴦陣의 핵심 군사 무예인 鏡鉞와 狼筈 등이 나타나 있다. 이후 高宗代에는 國喪 중 상여의

先驅禁軍들이 鴛鴦陣의 형태로 대열을 갖춘 것으로 보아 壬亂시 朝鮮에 도입된 鴛鴦陣이 朝鮮後期까지 지속적으로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조선후기 鴛鴦陣의 광범위한 보급 및 발달은 鴛鴦陣이 갖는 병종의 다양화를 통한 長短兵의 攻防능력 강화가 핵심적 이유였다. 또한 원양진에 활용된 각각의 군사무예에 대한 선병의 변화를 통하여 가장 효과적인 소규모 부대로 거듭날 수 있었다. 특히 鴛鴦陣에서는 刀手와 牌手에게는 鏢槍, 狼筈은 腰刀, 長槍은 弓矢, 鎗鉞은 火箭 등의 장단무기를 동시에 운용하면서 화기발달로 인한 戰場의 환경 변화에 임기응변의 능력을 극대화시킨 조선후기 대표적인 陣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조선후기에도 지속적으로 원양진법이 훈련된 배경에 壬亂 중에 도입한 『紀效新書』와 이를 바탕으로 조선식으로 발전시킨 『兵學指南』의 완전한 폐기가 아닌 조선전기 오위진법체제 복구와 함께 기병위주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步兵(특히 殺手)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끝으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陣法에 대한 움직임을 단순히 문헌적 고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鴛鴦陣에 사용된 軍士武藝를 직접 고증 복원하면서 얻어진 實技的 접근을 동시에 하여 당시 軍士武藝의 특징을 밝히고자 하였다. 보통 전통시대에 陣法을 논할 때에는 집단의 움직임으로서 陣形을 익히는 것과 진법 속에 각 군사 개개인의 武藝를 비롯한 실제적 움직임을 익히는 것이 수레의 두 바퀴처럼 함께 이뤄져야만 했다. 앞으로 陣法을 비롯한 다양한 軍事史 영역들에서 이러한 實技的 접근이 함께 이뤄져 보다 현실적인 연구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

(원고투고일 : 2010. 12. 30, 심사수정일 : 2011. 1. 21, 게재확정일 : 2011. 2. 1.)

주제어 : 진법(陣法), 원양진(鴛鴦陣), 군사무예(軍士武藝), 무예(武藝),馬上무예(馬上武藝), 병학통(兵學通), 무예사(武藝史), 단병접전(短兵接戰),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 보병전술(步兵戰術)

<Abstract>

The Characteristics of Soldier Martial Arts to Battle Formation *Weonangjin*(Mandarin Duck Battle Formation) in the Later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Choi, Hyeong-guk

This paper describes the background information on the introduction and the settlement process of *Weonangjin*(Mandarin Duck Battle Formation), which was the troop disposition rule that was used by the Ming Dynasty, in *Joseon*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In particular, we tried to reveal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the military martial arts used during the late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not only by reviewing literature but also by analyzing the actual movement of the martial arts that were applied in the *Weonangjin* method. Through this, we tried to track the changes in the disposition of troops and military martial arts that occurred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s in the combat environment during the late *Joseon* Dynasty. In conclusion, we found that the application of the *Weonangjin* method, which was widely used during the late *Joseon* Dynasty, led to an organization of a variety of branches of the army, which were created to facilitate small units in combat. Also, we found that there was a method in place to select soldiers with the optimal physical conditions in consideration of the nature of the military martial arts. It could be said that the disposition of troops and the military martial arts that the individual soldiers were trained in were able to quickly accommodate the changes that occurred in the battlefield.

Key Words : Battle Formation, *Weonangjin*, Mandarin Duck Battle Formation, Martial Arts, Soldier Martial Arts, Infantry Tactics, *Byeong-hak-tong*, *Muye-dobo-tongji*, Hand-to-hand Combat, Martial Arts History

